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전 우 택** · 유 시 은*** · 이 연 우****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국문요약

연구 목적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이루어졌다. 개방 코딩 결과 총73개의 개념과 23개의 하위 범주,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 유형은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

람',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 '탈국가적 개인주의자' 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한 주민 통합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가정체성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국가정체성, 적응, 통합, 근거이론

I. 서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게 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순간을 남한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기억한다.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 '국적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두려움과 서러움, 한(恨)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재원(교육과학 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8-B00040).

** 연세의대 사회정신과학/의학교육학과 교수

***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 박사후 연수

**** 닐슨컴퍼니 선임연구원

받은 것과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북한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모든 가족,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향수 및 소속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자나 난민들의 경우,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국가정체성’ 정립과 남한사회 적응은 매우 중대한 이슈이다. 더 나아가 1세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귀속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이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남한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보다는 제3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기 보다는 제3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관점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약 3,7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호주 등을 최종 거주지로 정하고 남한을 경유하여 떠나거나 제3국에서 직접 외국에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² 만일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남한을 그들의 최종 정착지로 보지 않고 다시 제3국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된다면, 통일의 당위성과 그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재정립에 대한 이해는 그들을 이해하고 지원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II. 선행연구

1. 국가정체성

정체성의 개념은 실증주의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³ 실증주의적 관점은 특정 지역 또는 개별 국가의 정체성을 문화적·종교적 유

¹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1 (January 1997), pp. 10-12.

² 『한겨레신문』, 2010년 9월 12일.

³ 강봉구 외,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0), p. 94.

사성과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하나의 고정 불변의 정적인 실재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체성에 대해 개인이 공유하는 동질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고유성을 상징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은 정체성을 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구성주의에서 정체성이란 그 정체성을 가지는 주체와 주변의 존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통하여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것이기에 결국 정체성 형성은 개별 주체의 지속적인 ‘자기 규정’(self-definition)과정인 동시에 ‘타자 규정’(definition of the Other)과정이다. 따라서 특정 주체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분열적이며 증첩적이고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⁴

정체성을 개인의 주체에 대한 규정으로 설명한다면, 국가 정체성은 한 국가 구성원들이 ‘국민임’(nationhood)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방식, 혹은 누가 국민인가를 규정하는 자기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rubaker(1992)는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들의 내용과 어떤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하였다.⁵ Evans와 Kelley(2002)는 국가 정체성을 국가에 대한 감정(sentiment), 즉 자긍심(national pride)과 애착(attachment), 소속과 충성심, 그리고 우월감(superiority)의 강도라고 설명하였다.⁶ Smith(1991)는 근대국가 체제가 출현하면서 종족-혈통적 요인들(ethnic-genealogical factors)과 더불어 시민-영토적 요인들(civic territorial factors)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고 하였다.⁷

홍미선(2008)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소속감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이는 언어와 민족을 구성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국제비교 연구를 실시한 정기선 등(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은 종족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역사적인 배경이 타문화와 비교해볼 기회가 적었기 때

⁴ 위의 책, p. 95.

⁵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p. 50.

⁶ M.D.R Evans & Jonathan Kelley, “National Pride in the Developed World: Survey data from 24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s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4, No. 3 (2002), pp. 303-338;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19권 1호(2011), p. 49.

⁷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p. 50.

⁸ 홍미선, “퀘벡 이주문학을 통해 본 이주민의 언어와 정체성,” 『불어불문학연구』, 74권 (2008), p. 499.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민적 요인인 출생, 거주, 문화적 전통, 언어, 법 존중, 소속감 등을 중요한 국가정체성 요인이라고 보았다.⁹

이러한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김재상(2011)은 독일 통일이후 구동독 주민은 ‘서독인화’ 되기 위하여 동독의 옛것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흉내 내는 생활을 하였다고 묘사하였다. ‘서독인화’를 지향한 동독 출신들은 후에 자기 세대를 ‘동서독 자용동체의 아이들’(zwittige Ostwestkinder)라고 지칭하며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공허감을 표출하였다.¹⁰ 독일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동독인들에게 구동독에 대한 일종의 향수인 ‘오스탈기 현상’이 확산되었으며 일방적인 서독 사회 중심의 도식화된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¹¹ 즉, 통일된 국가의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독일에서 중요한 사회통합 이슈가 되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면서 자신들의 국적을 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중국 등의 제 3국에서 “무국적자”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복잡한 국가정체성을 체험하게 된다. 즉,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출신 국가인 북한의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남한의 국적을 가지는 순간 남한의 국가정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남한 또는 북한의 정체성의 복합적 의식, 또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제 3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 의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복잡한 삶의 여정은 이들의 국가정체성을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곧 구조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순형 등(2007)은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탈북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⁹ 정기선, 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pp. 65-66.

¹⁰ 김용민, “통일 독일의 미래는 동독인들에게? -통일 독일사회의 동독 젊은이와 여성들,” 『독일문학』, 제101집 (2007), pp. 236-237.

¹¹ 김재상, “통일 이후 동서독 간 갈등의 재조명-2000년대 오스탈기 붐과 동독 이상화 현상을 보는 독일 사회의 시각 변화,” 『뉘히너와 현대문학』, 제36권 (2011), pp. 213-214.

북한에 대한 소속감 내지 정서적 친근감이 강하였다.¹²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동기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경험과 국가정체성, 가족정체성, 자아정체성의 관계를 질적 연구하였다. 조정아 등(2006)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갈등 해결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을 연구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표집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노출할 것인가 감출 것인가 하는 갈등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사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 변화를 시간에 따라 연구한 전우택 등(2004, 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한사회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¹⁴ 권나혜(2006)의 남한 내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체성과 생활경험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어려운 탈북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생존자’로서의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소수자로서 ‘주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탈대학생들은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닌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남북한 사회를 잇는 ‘중간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대항하려는 경향을 보였다.¹⁵

그 동안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정체성과 이와 연관된 내용들을 도출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근거이론의 틀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속감과 관련된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과 유형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

¹² 이순형·조수철·김창대·진미정,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 355.

¹³ 조정아·임순희·정진경,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pp. 284-286.

¹⁴ 전우택·윤덕룡·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3권 1호 (2004), pp. 345-353; 전우택·유시은·조영아·홍창형·엄진섭·서승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5권 제3호 (2006), pp. 252-268.

¹⁵ 권나혜,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p. 4-5.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유형을 탐색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심리적, 사회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5명이다. 피면담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사회 적응에 대한 패널 연구’¹⁶에 참여한 500명 중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 표집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국가정체성 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고려하였다.¹⁷ 즉,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북한 학력, 제3국 체류기간, 차별 경험, 북한 및 탈북 외상 경험, 결혼 경험과 배우자 국적, 남한 경제활동 참여 여부이다.

피면담자는 여성 11명, 남성 4명으로 총 15명이다. 평균 연령은 37.1세로 20대 2명, 30대 6명, 40대 7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6명, 전문대학 졸업 이하 7명, 대학 졸업 이하 2명이다. 제3국 체류기간은 평균 2년 7개월, 결혼 여부는 미혼 7명, 기혼 7명, 이혼 1명, 북한거주 지역은 함경도 10명, 강원도 1명, 평안도 1명, 평양 1명, 자강도 1명, 황해도 1명이다. 연구대상자는 <표 1>에 제시하였다.

¹⁶ 전우택·염유식, “이 땅에서의 첫해, 500명 북한이주민의 삶과 생각,” 『제16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 pp. 21-24.

¹⁷ 위의 책, pp. 25-39.

<표 1> 연구 대상자

기호	성별	연령	북한학력	제3국 체류기간	결혼	북한거주	남한거주	직장
1	여자	43	고등중 졸업	6년	미혼	강원	경기	없음
2	남자	35	전문대 졸업	7개월	기혼	함남	서울	있음
3	남자	36	전문대 졸업	3개월	기혼	함북	서울	없음
4	여자	34	고등중 졸업	3개월	기혼	함북	서울	없음
5	여자	30	전문대 졸업	5개월	기혼	평북	서울	있음
6	남자	45	전문대 졸업	5개월	이혼	함북	서울	없음
7	여자	44	고등중 졸업	3개월	기혼	황남	경기	있음
8	여자	34	고등중 졸업	4개월	기혼	함북	강릉	없음
9	여자	29	고등중 졸업	3년 8개월	미혼	평양	경기	없음
10	여자	32	전문대 졸업	3개월	미혼	함남	서울	있음
11	여자	41	전문대 중퇴	9년 7개월	미혼	자강	서울	없음
12	여자	25	고등중 중퇴	6년 7개월	미혼	함북	인천	없음
13	남자	46	전문대 졸업	1년	미혼	함남	서울	있음
14	여자	42	대학 졸업	6개월	기혼	함북	서울	있음
15	여자	41	전문대 졸업	9년 9개월	미혼	함북	경기	있음

2. 자료 수집

심층 면담은 2010년 4월 13일에서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었으며,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각 사람 당 1회에서 3회 가량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면담자에게 연구 목적, 비밀 보장, 인터뷰 녹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개방형 형태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피면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내용은 탈북 동기, 제3국에서의 생활, 남한 입국 결정 과정, 남한 사회 적응 과정과 소속감 경험 사례, 남한 주민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

3. 자료 분석

국가정체성과 같은 매우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주제의 질적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 Theory) 방법을 선택하였다. 근거이론은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질적 연구 분석방법이며,¹⁸ 심층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들을 수정·통합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 방법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서로 상호 연관되는 집단으로 나누어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수집된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한 후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하였다. 개방 코딩(open coding)은 기초 자료를 가지고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분석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이다.¹⁹ 범주화(Categories)과정이란 현상을 대표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주들을 다시 여러 개의 하위범주들로 묶게 되는데, 하위범주는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다.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라 부르는 이유는 코딩한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나열된 범주들 사이에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한다.²⁰ 이 때 패러다임(Paradigm model)을 활용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며, 여기서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 현상’(Central phenomenon), ‘조건’(Condition), ‘작용/상호 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로 구분하게 된다. 조건은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원인적 조건’(Causal condition), 원인적 조건과 중심현상 사이에서 영향을 끼치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심 현상과 상호작용 전략 사이에서 영향을 끼치는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으로 다시 구분된다.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통하여 범주들을 통합하고 중심범주를 기술하게 된다.²¹ 이 단계에서는 범주들의 연결을 체계화하여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명백히 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의 근거를 완성한다. 근거이론에 의한 질적 자료 분석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¹⁸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Reseach Design* (CA: Sage Publication, 2007), p. 63.

¹⁹ Anselm L. Strauss and Juliet M. Corbin, 김수지·심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p. 73.

²⁰ 위의 책, p. 116.

²¹ Anselm L. Strauss and M. Juliet Corbin,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1998), p. 163.; David Partington, “Building Grounded Theories of Management Action,”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 11 (2000), p. 94.

VI.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1. 개방형 코딩과 범주화

국가정체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 면담 자료들을 범주화하고, 각 속성과 차원을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유사한 경험과 인식으로 묶었다. 이러한 개방 코딩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3개의 개념, 23개의 하위 범주와 이들을 포괄하는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과 범주들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탈북 동기	경제적 어려움	먹을 게 없음, 고난의 10년, 중국에서 돈 벌기 위해 탈출
	자유 희망	경제 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발달된 문명에 대한 동경	자녀 교육, 휘황한 불빛이 있는 중국 국경에 대한 동경.
	가족과의 재회	해외 거주 혈족을 만나기 위해,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연고와 연고의 변화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등이 사라짐, 지인의 부추김
국가정체성 혼란 영향요인	제3국 거주 경험	중국 거주기간, 중국 공안과의 저촉 경험, 중국에서의 혼인 여부
	북한 거주 경험	신분에 따른 출세 한계 경험, 강제 노역, 북한 당국의 감시 및 마찰
	인구학적 변수	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족 관계, 교육 정도, 본래 사회적 지위와 직업 활동, 거주 지역, 개인적 성향
국가정체성 혼란	난민/실향민 의식	나라 없는 설움, 고향에서 ‘쫓겨났다’는 박탈감, 특권 포기에 대한 설움
	유랑민 의식	국가의 필요와 존재를 미약하게 인지, 생존이 급선무, ‘남편’ 등 개인적 관계를 국가와의 관계보다 정체성 형성에 중요시함
한국 사회 안에서의 체험	구직과 근로 장벽	구직 시장에서의 차별, 구직을 위한 교육 이수, 임금 차별, 노사 문화 충격, 직장에서의 인정
	문화적 충돌	언어, 성평등/성개방 문화 충격, 소비향락문화, 자선문화, 가정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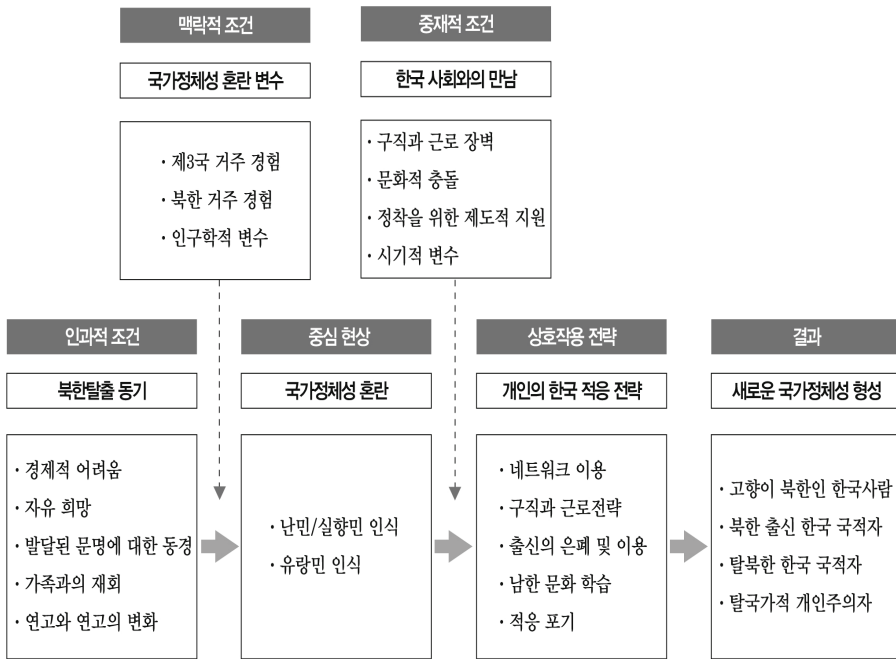
	제도적 지원	시민권 부여, 국가의 복지 정책
	시기적 변수	천안함 사태, 월드컵 경기
개인의 한국 적응 전략	네트워크 이용	혼인 등 사적 네트워크, 남한인과의 네트워크, 탈북민들 네트워크 이용
	구직과 근로 전략	적극적 구직/소극적 구직, 적극적 근로/소극적 근로
	출신의 은폐 및 이용	북한인임을 알리고 도움 요청, 북한인임을 숨기고 생활
	남한 문화 학습	남한인의 드라마 등 문화 공부, 억양과 언어 학습
	적응 포기	칩거, 쉽사리 퇴직, 구직 포기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	북한 문화적 풍습 자랑스럽게 여김, 남한에서도 잘 살고 있다고 여김, 북한에의 애정 남아있음, 북한과 한국 모두에 긍정적인 소속감 느낌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북한 출신으로 인해 남한에서 차별 받는 위치라 느낌, 주변인, 타자화
	탈북한 한국 국적자	한국 사람이라고 답변함, 북한에의 애정 없음, 국적 있으나 차별받음, 타자화
	탈국가적 개인주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함, 약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김, 가정 등 개인적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음

2. 축 코딩

상기의 개방형 코딩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범주화하였다. 특히 6개의 상위범주로 구분한 것을 축코딩과 관련하여 6개의 축으로 다시 조직화하였다. 즉, 원인적 조건은 ‘북한탈출 동기’, 맥락적 조건은 ‘국가정체성 혼란 변수’, 중심 현상은 ‘국가정체성 혼란’, 중재적 조건은 ‘한국 사회와의 만남’, 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의 한국 적응 전략’, 결과는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형 코딩 단계에서 흩어져있던 정보를 조합하고, 각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에 연결시켜 패러다임을 도출한다.²²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혼란의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²² 김은정,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들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한국사회학』, 제43권 2호 (2009), p. 99.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국가정체성 형성과 혼란의 패러다임 모형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인과적 조건’에 의해 북한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이 때 기존의 소속 국가를 벗어남과 동시에 법적 신분과 기존의 국가정체성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명목적 국적과 내적 정체성 충돌은 여러 ‘변수’를 통해 ‘국가 정체성 혼란’이라는 중심 현상에 이르게 된다.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중재적 조건), 그 안에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때 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패러다임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각 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과적 조건: 북한 탈출 동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혼란은 자신이 속해있던 나라가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된다. 즉, 모국인 북한을 떠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3국을 떠돌면서 혼란은 시작된다. 피면담자와의 면담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 혼란의 1차적 원인인 ‘북한 탈출’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어려움

피면담자 다수의 탈북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1990년 이전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가 정치적 이유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²³ 대다수의 피면담자들은 ‘배고픔’, ‘음식이 없음’, ‘고난의 10년’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의 동기로 꼽았다.

“처음에는 죽 썰 먹다 풀 섞어 먹다, 막 이런 가구들이 집안 물건 내다 팔다…(중략)… 저도 그냥 똑같이 겪었죠. 그러면서 막 굶어 죽으려고… 이렇게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며칠씩 있다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막 국경 넘어, 그때 넘어가서 중국에서 막 힘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서 막 수백만이 굶어 죽고… 아주… 진짜 길바닥에 시체가 짝 널렸어요.” (사례 15)

(2) 자유 희망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많은 피면담자들은 ‘자유 희망’을 탈북 원인이라고 밝혔다. 흔히 자유를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이후의 고차원적인 욕망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북한에서의 ‘자유 희망’은 보다 원초적일 때가 많다. 배급 경제가 무너진 북한에서 밀무역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제재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막히면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연히 탈북한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북한 당국의 제재가 신체에 대한 징벌과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역시 보다 근본적 자유인 신체적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게 된다.

“중국 가면, 자유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도는 거예요.” (사례 9)

“나라에서 불법 일하고 하니까… 도망치듯 나왔죠. (불법 일이라면 어떤?) 여기 말로 하면 밀수라고 해야 하나. 종이라든가 광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김정일 사상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해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고래 지내니까… 내 자부심을 더 발휘하지 못하니까. 요만하게 묶어놓고 딱 이렇게 살아라…….” (사례 3)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올랐나요?) 자유국가 아닙니까. 자기가 번 것만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북한에서는 그렇게 벌어도 아무리 일을

²³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 이동과 처벌 실태,” 『통일전략』, 제18권 1호 (2006), pp. 219-220.; 정주신, “국내의 북한이주민 실태와 정부의 과제-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2003), pp. 97-120.

해도 돈도 안주고 쌀도 안 주잖아요.” (사례 15)

(3) 발달된 문명에 대한 동경

북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달한 문명에 대한 동경²⁴은 탈북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이다. 특히,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의 분야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탈북을 자극하였다.

“중국이… 북한에서 보면 멋있거든요. 밤거리도 멋있고.” (사례 8)

“제가 10년 전에 (신의주) 갔을 때 중국이 엄청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화려해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또 국경에 다가 유별나게 잘… 저게 왜 갑자기 저렇게 막 반짝 반짝… 계다가 명절이었어요. 불꽃축제 막 한 시간씩 하고 난리 난 거예요. 와 동쪽에 서서 저게 뭘까 막 이렇게 서서…” (사례 9)

사례 8과 사례 9와 같이 국경 지역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발달된 문명은 탈북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4) 가족과의 재회

가족과의 재회 역시 탈북 동기의 중요한 이유였다. 북한이 아닌 지역에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 가족들을 통해 외부 정보를 듣게 되고 재회 혹은 재결합을 하기 위해 탈북을 한다. 먼저 남한에 입국한 가족들도 이와 유사하다. 남한으로 이미 입국한 가족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탈북 루트 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공유함으로써 친인척의 탈북을 돕는다.

“신랑이 먼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서… 남편 따라 그냥 뭐, 그 때는 한국이라는 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곤 했는데, 정작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시누이가 믿고 오라고 하니까 믿고 온 것 같아요.” (사례 5)

“그냥 여기(한국)에 언니가 있고, 언니가 도와줘서 왔거든요. … (중략) … 사실은 언니하고 브로커하고 일을 다 한 거죠. 그 브로커는 일주일 만에 나를 보낸다고 했어요, 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사례 10)

²⁴ 이 때의 발달된 문명에 대한 동경은 대체로 중국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탈북할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발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5) 연고와 연고의 변화

피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연고의 유무 역시 탈북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인의 도움과 같은 ‘연고’와 부양 책임의 소멸과 같은 ‘연고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연고의 기본적인 영향력은 중국 및 남한행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친인척이 탈북을 권유하거나 실질적 도움을 줄 때 발휘된다.

“(북한에서도 남한 사람들, 먼저 간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했죠. (중략) 중국…한국…… 오히려 가까이 계속 말해보고 계속 통화해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옆집처럼 그래 가지고.” (사례 6)

“양엄마처럼 따랐던 사람…(중략)… 근데 그 언니를 아니까, 아 언니 한국 가겠다 딱 결정하고, 4일 만에 (중략). 진짜 좋다 니 와봐라 말로만 말고. 와보면 알 거다 이러는 거예요.” (사례 7)

‘연고의 변화’는 기존의 연고가 ‘해체’될 때, 지금까지 망설이던 피면담자로 하여금 탈북을 결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양하던 가족의 사망 또는 혼인으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더욱 쉬어진다. 이때 ‘책임의 소멸’이란 통상적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좌제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 자식 두고 온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동생도 다 죽고 아버지도 없지… 북한에 크게 미련이 없어요.” (사례 7)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직계 가족에서는 특별히 큰 간부가 아니면 여자니까 시집가면 또 괜찮거든요. 시집 쪽에 속해 있는 족보니까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사례 5)

나. 맥락적 조건: 국가정체성 혼란 변수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시간 혹은 장소와 같이, 상호 작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배경이다.²⁵ 본 연구에서는 탈북 이후 각기 다른 양상의 국가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의 특수한 조건과 상

²⁵ 김은정,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들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한국사회학』, 제43권 2호 (2009), p. 104.

황의 조합을 ‘맥락적 조건’으로 보았다. 이는 국가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피면담자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 혼란 변수’로는 ‘제3국 거주 경험’, ‘북한 거주 경험’, ‘인구학적 변수’가 있다.

(1) 제3국 거주 경험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체류는 모든 피면담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제3국 체류 경험과 인식은 ‘국가정체성 혼란’이라는 중심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제3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겪은 피면담자 중에는 국가의 보호가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난민/실향민’ 의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제3국 체류 기간이 남들보다 월등히 길고 북한과 제3국을 통상적으로 드나들었던 이들 중에는 대개 국가적 경제나 필요성을 미약하게 인식하는 유랑민 의식을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제3국 체류 경험은 당시의 ‘국가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남한 입국 이후에도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세우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제3국 체류 기간 동안 혼인을 하고 타국적 배우자와 동반 입국을 하게 된 경우 복합적인 국가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중국에 가도 숨어 살아야 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에겐 눈치를 보면서 빌붙으며 살아야 되고, 내가 조금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공안에 끈지르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그 설움이 이제 진짜 눈물 나게 느껴져요.” (사례 2)

(2) 북한 거주 경험

북한 거주 경험은 탈북 이전 북한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과 갈등을 겪었거나 고난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탄광으로 쫓겨 내려갔지. 가족 전체가.” (사례 1)

“(아버지가) 이남 출신이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해요. (중략) 내가 구살장까지 하면서 입당하려고 했는데, 딱 칼아뭉개는 거예요.” (사례 7)

구체적인 개념으로는 ‘좋지 않은 신분에 의하여 출세의 한계를 경험’, ‘북한 당

국의 감시를 받음’, ‘강제 노역’ 등이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의 경험이 고달플수록 남한 입국 이후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국가의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크게 서러움을 느끼지 않는 ‘유랑민’ 의식을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국가란 항상 억압의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부재(不在)에 대한 박탈감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인구학적 변수

국가정체성 혼란이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맥락적 조건은 인구학적 변수이다. 면담에서 드러난 중요한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나이, 혼인 여부, 가족 관계, 북한 내 거주 지역, 직업, 지위, 교육 여부이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²⁶ 나이가 많을수록,²⁷ 북한 내 지위가 높을수록 등 탈북 이전 북에서 누렸던 헤게모니(hegemony)가 공고할수록 탈북 이후의 박탈감도 심했다. 피면담자의 북한 내 교육 정도 또한 국가정체성의 혼란과 재정립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표본의 한계로 교육 정도와 국가정체성의 혼란 유형 및 재정립에 일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북한에서의 고등 교육 경험은 적어도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새로운 국가 정체성 역시 긍정적 방향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²⁸

²⁶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우선이어서 아빠 말이면 애들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중략)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따르는 건 없고, 아빠가 뭐 해야 한다고 하면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반박이 자꾸 들어오고.” (사례 6); “(북한에서는) 가장이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애도 돌봐주고 그런 게 없거든요. 여자가 다 해야 된다. 여기는 남편이 와이프 일도 도와주고, 제가 자면 챙겨주고, 가정적으로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거 같아요.” (사례 5); 앞의 사례 6(남)과 5(여)는 모두 북한에 비해 보다 양성 평등한 남한의 문화를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 때, 여성 응답자는 이를 남한의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고 적응 의지를 고취시켰지만 남성 응답자는 달라진 가정 내에서의 위치에 더욱 위축되었다.

²⁷ “애들이 100킬로 변하는 거 하고 나는 20킬로 변하죠.” (사례 6); “아직은 젊은 놈들이니까 좀 훌러덩 훌러덩 하는 성질들이 아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야기 하고 조언을 주고 하면 예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데 자기 댁에는 우물 우물한 그런 성질이 아직 있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적응이 조금 더 힘들거든요.” (사례 2).

²⁸ “여기서 쓰는 기본적 지식은 아니지만, 과정이, 자기 기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도 할 수 있다, 자기가 배우는 과정을 가지고 … (중략) … 배우는 과정에 모든 걸 다 체험하잖아요. 그걸 일에서 다른 일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질문. 내가 한국사람이다 라는 내 정체감을 키우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배웠던 게 영향이 있어요?) 좀 더 배운 사람이 영향을 빨리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웠다고 다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이 아무래도.” (사례 5).

다. 중심 현상: 국가정체성 혼란

중심 현상이란 피면담자가 작용/상호전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²⁹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겪게 되는 국가정체성의 혼란 양상이 중심 현상이다. 국가정체성의 혼란은 기존에 갖고 있던 ‘북한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현재의 신분과 불일치함으로써 일어나는 내적인 혼란을 의미한다. 한국의 재외 동포들 중 상당수가 법적 시민권 없이도 한국에 대한 일정한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국경을 넘는 순간 북한 당국의 처벌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의 혼란은 더욱 강해진다. 즉, 더 이상 ‘북한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국가 규모의 집단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정체성의 부재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난민/실향민 의식’과 ‘유랑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난민/실향민 의식

‘난민/실향민 의식’은 기존에 살던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의 국가일 수 없음을 인식, 이에 대한 ‘서러움’,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실향에 따른 실의’, ‘나라 없는 설움’, ‘기존 권리의 박탈’ 등이 이런 ‘난민/실향민 의식’의 기저에 있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에 갈 수 없는 몸이잖아요. (중략) 국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되거든요. 부모 없는 설움보다, 더 큰 설움이…진짜 자기네 나라가 없는 설움이라는 게 ……” (사례 2)

“아 서럽구나. 내가 왜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서러운 거죠.”(사례 10)

위의 내용들은 ‘난민/실향민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나라 없는 설움’, ‘고향에 다시 갈 수 없는 몸’ 등으로 호소하고 있다.

(2) 유랑민 의식

‘난민/실향민 의식’과 달리 ‘유랑민 의식’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국가의 부재

²⁹ 김진숙, “소아암 부모 리더들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2호 (2005), p. 424.

와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특히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가를 의식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이 나타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해석해 보았다. 첫째, 북한 당국 자체가 이미 체제 내적 붕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모국에 있을 때에도 국가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신변의 불안과 생존 위협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는 ‘소속 국가에 대한 열망’ 역시 그 비교 대상의 부재로 인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 둘째, 제3국 체류 생활이 생존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처지에 대한 거시적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유랑민 의식을 보이는 경우이다.

“(북한) 떠나도 될까 생각은 했는데, 떠나고 나서는 후회가 안 됐어요.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거기서 사는 게 참...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그러니까 별로 미련이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이왕 가는 거 무조건 살아서 가야지, 고민은 없고 여기서 내가 잡히면 죽으니깐 무조건 살아서 가야 한다. (정체성) 고민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사례 5)

라. 중재적 조건: 한국 사회와의 만남

중재적 조건은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인 장으로, 피면담자들이 언급하는 다양한 작용, 상호 작용 전략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상황적 정보를 의미한다.³⁰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국가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던 피면담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전략을 펼칠 때, 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원인이다.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표면상 국가정체성의 재정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합법적인 시민권 획득을 하는 그 순간부터이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배경, 즉 한국사회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중재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국가정체성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촉진/좌절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의 합은 ‘중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 범주로 면담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구직과 근로 장벽’, ‘문화적 충돌’, ‘제도적 지원’, ‘시기적 변수’이다.

³⁰ 위의 글, p. 424.

(1) 구직과 근로 장벽

‘구직과 근로 장벽’은 모든 피면담자가 공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한국 입국 이후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차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한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³¹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의 배경이 된다. 응답자 11명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고용 거부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³² 일자리를 얻은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 차별을 겪었다고 하였다.³³ 또한 시간 외 근무, 정해진 노동 외의 감정 노동 및 돌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반감을 느끼는 부분이다.³⁴ 이런 노사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쉽게 일을 그만 둔다는 오명을 얻게 되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2) 문화적 충돌

‘문화적 충돌’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정체성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피면담자들이 보고한 문화적 충돌의 개념은 ‘언어’, ‘개방적인 성문화’, ‘향락적 소비 문화’, ‘양성평등 의식’, ‘자녀 교육 방식’, ‘자선 문화’ 등이 있다. 언어의 충돌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센 ‘억양’과 한국의 빈번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양성 평등 의식과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의 충돌 역시 주요한 문화적 충돌의 하나이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상대적인 양성 평등 문화를 접했을 때 문화적

³¹ “(어느 때 차별 받는다고 느끼세요?) 일할 때만 그렇지, 돈 쓸 때는 상관없고. 돈 뭐 못 알아듣는 말이어도. 돈 벌 때는 그게 아니더라. 돈 벌 때는 약간 못 알아들어도 약간 뭐 그런 게 있으면 제한을 할까 하는 부분이 많죠.” (사례 6).

³² “아직까지 탈북자라고 하면요. 내가 면접을 미리 봤는데 딱 잘려요. 말투가 그러니까, ‘저 이복에서 왔어요’ 하면, ‘아 그러세요? 저희는 이복 사람 안 받는데요, 교포는 받아도’ 라고.” (사례 7).

³³ “한국 사람하고 일하는 거에서는 똑같은 일하고. (소파 옮기는 것 같잖아요.) 아 똑같잖아요! 4만원이면 4만원 똑같이 줘야 하는데 나는 2만 7천원... 2만 4천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월급에서. 월급에서 까보니까, 일은 내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보다 돈이 모자란 거요.” (사례 3).

³⁴ “근데 사장이 야 ×야 너는 왜 커피 안 타냐, 그러기에 ‘저는 커피 안 마시는데요.’ 했어요. 그랬더니 너 안 마시면 안 마시지 사장한테는 커피 타줘야지...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잘렸어요.” (사례 7).

충격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향락적인 소비 문화 또는 자녀 중심의 문화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3)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와의 만남에 있어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첫인상’이다. 또한 마지막까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의 상호 전략을 구사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제도적 지원은 ‘시민권 부여’와 ‘복지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권 부여’는 오랜 기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높여준다. 이들은 중국 공안에게 쫓겨 다니며 ‘신분증 요구’ 앞에 뿔뿔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증거’는 ‘한국사람’으로서의 자부심 내지 권리 의식을 더 실감하게 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신분의 인정은 남한 입국 이후 2등 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제도권에 대한 신뢰만은 잃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탁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라는 게 있고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정이 됐잖아요. 그걸로, 나라가 없이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정보다 더 중한 게 나라구나 이런 걸 느껴봤어요.” (사례 2)

“불이익 당하면 저희 한국 그래도 시민이잖아요. 나라가 자본주의 이랬다 해도, 그대로 시민들 불만은 좀 들어주잖아요. 우리도 국민인데… 그냥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을 뿐이지…….” (사례 8)

이 외에도 정착지원비나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과 같은 복지 지원 제도와 교회 등의 민간 지원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주는 기제가 된다. 이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에 가까운 척박한 모습이었기에 이러한 민관의 지원에 더 많이 감격해 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의료 보호법도 있고, 그냥 가서 치료도 받게 해주고. 너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병까지 생기는 장기 질환자라면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는 거죠,

여기서. 적십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의지가 되고. (남한 긍정적 평가 하는 데 영향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도와주고 서로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많아요. 텔레비전도 보면 서로 남을 도와주고.. 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나쁜 게 없구나.” (사례 1)

(4) 시기적 변수

‘시기적 변수’는 이 연구의 ‘중재적 조건’ 중 유일한 시간적 요인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전후로 일어난 국가 규모의 행사와 대북 관련 이슈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월드컵’과 ‘천안함 사건’을 가리키는데, 두 사건은 경사와 비보(悲報)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두 사건 모두 ‘한국’과 ‘한국이 아닌 나라’의 편가르기를 심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항전 형태의 축구 경기는 스포츠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Nationalism)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³⁵ 천안함 사태는 젊은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참사를 겪은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남한 내부의 체제 단속 조짐마저 있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시기적 변수를 맞닥뜨린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신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되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북한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모두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조된 국가주의 분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타자화시키기 쉽다. 천안함 사건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주었다. 천안함 사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사람을 죽인 건 북한이 잘못했다’며 같이 성토했면서도 ‘내가 한국 사람이 다 되었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이유 없는 죄의식을 느껴야 했다’는 피면담자도 있었다.³⁶

“그게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 저 사람들이 (북한선수) 뭐가 잘못이 있냐, 사람

³⁵ Richard Giulianotti, *Globalization and Football* (London: Sage Publication, 2009). p. 18.

³⁶ 이런 죄의식은 1차적으로는 피면담자 개인이 아직 북한과의 연대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당시, 사건과 관련 없는 재미교포들이 집단적으로 과잉 사죄하는 것은 그 동안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Minority group)으로 받아들여온 차별에서 얻은 경험적 교훈 때문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섞인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을 아끼고 죄의식을 연출하는 것 역시 그간 받아들여온 사회적 차별로부터 습득한 자기 보호라고도 할 수도 있다. 『한겨레 신문』, 2007년 4월 30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06317.html>>.

자체는 잘못된 것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또 얼마나 자랑스럽고 굉장해. 외국 나가가지고 다 이기잖아! 그런 게.. 북한 하고 그렇게 한국처럼 잘 되어가지도 이렇게 했으면, 박지성처럼 진짜 조금 이겨주는 선수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 대한민국은 되게 좀 뿌듯하고, 북한은 안쓰러우면서도 웬지.” (사례 14)

“이번에 천안함 사건 일어나고 월드컵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항상 한국하고 북한하고 시합하는 데 어느 편을 응원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중략) 마음 읽으려고… 한국 응원도 안 하면서 한국국적 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 나는 경기 나오면 한국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딱 심장 찢어가면서 말하니까 괴씸한 거예요.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없이 보고 그러는가…….” (사례 7)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개인의 한국 적응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이란 현상을 인지한 개인들이 주어진 중재적 조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의 집합체이다.³⁷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건 하에 시도하는 남한 사회에의 적응 활동 중, 새로운 국가정체성 정립에 기여할만한 모든 활동이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의 한국 적응 전략’에는 ‘네트워크 이용’, ‘구직과 근로 전략’, ‘북한 출신의 이용 및 은폐’, ‘남한의 문화 학습’, 그리고 ‘적응 포기’가 있다. 피면담자들은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새로운 유형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1) 네트워크 이용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맺어온 연고가 일시에 단절되면서 상실감을 경험한다. 이 때 피면담자들은 이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여러 방식의 인맥을 쌓는 전략을 구사한다. 인맥의 형성 유형은 ‘탈북민 네트워크 이용’, ‘남한인 네트워크 이용’, 그리고 ‘혼인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이용은 일단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든 점,³⁸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뭘, 남한에 친척들이 있다고 해서 적응이 되는지 이걸 크게 잘 모르겠어요.

³⁷ 김은정,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들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p. 115.

³⁸ 네트워크 1차적 형성은 하나원 퇴소 동기, 직업 훈련 학원 동기 등이었다.

왜냐면 이렇게 조연도 듣고 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북한에서 먼저 몇 년 전에 온 선배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게 더 빠르거든요. 남한, 그것 다 겪으셨기 때문에 조연을 해주시면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빨라요. 한국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한다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사례 2)

반면, 남한인 네트워크 이용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낯선 남한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혼인 전략은 혼인을 통해 연고를 구축하는 방식으로써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와서 혈연을 상실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시 혈연을 맺고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할 배우자가) 한국 출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 쪽이 한국 출신이 되어야 드문드문, 같이, 나도 그 집 남자 쪽의 가족이 되잖아요.” (사례 15)

사례 15의 진술은 혼인을 통한 혈연의 확대에 대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준다. 이는 상호작용 전략으로서의 ‘혼인’의 의미를 재확인 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2) 구직과 근로 전략

노동시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차별은 사회적 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한 피면담자의 경우, “돈을 쓸 때는 차별이 없지만 돈을 벌 때는 차별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피면담자들이 활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적극적인 구직과 근로’와 ‘소극적인 구직 및 근로’이다. 전자를 택한 피면담자들은 적극적인 근로 의욕을 보임으로서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일을 얻은 후에도 ‘남들(한국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 잡아간다.³⁹ 그러나 ‘적극적 구직과 근로’ 전략을 활용하는 피면담자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구직과 근로 과정에서 자신을 피력해야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였다. 이는 북한의 노동 시장과 보상이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수동적이었기 때문이다.⁴⁰ 북한에서의 수동적인 근로 경험이 남한에서의 노동 시장 적응을

³⁹ “나는 그랬어요. 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현재는 아무 것도 없다고.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주민등록증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럼 사장님이 뭐 하루 이틀 시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도 좋다, 나는 이견이 없으니까. 사장이 안 쓰면 안 쓰는 거 아니냐.” (사례 2); 위의 사례 2가 바로 그런 사례로, 그 역시 취업 시장에 차별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런 불이익을 ‘한 번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보내라’는 적극적인 근로 의욕을 내비침으로써 극복해나간다. 사례 2는 이런 적극적인 근로 의사 표명을 통해 꽤 규모가 큰 공장의 창고 관리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어렵게 할 것이라는 가설은, 실제 ‘적극적 노동 전략’을 채택하였던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⁴¹ 실제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적극적 구직과 근로’전략 대신 ‘소극적 구직과 근로’ 전략을 택하였다. ‘소극적 구직과 근로 전략’은 쉽게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설령 일 자리를 얻었다 해도 쉽게 일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3) 출신의 은폐 및 이용

출신의 은폐 및 이용은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출신 노출’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유한 ‘억양’은 원치 않아도 신분을 노출시키는 기제이다. 이때 피면담자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더러는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말투 교정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을 숨기거나, 이렇게 발생한 의사신원(Pseudo-identity)은 결과적으로 통합적인 국가정체성 형성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사례도 드물게 발견되었다. 즉,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동료들 사이에서 관심 또는 배려를 받는 경우이다.

(4) 남한 문화 학습

남한 문화 학습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정도에 상관없이 한번 이상 시도했던 전략이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학습한다. 하지만 이를 얼마나 의식적 또는 전략적으로 수행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전략’으로서의 남한 문화 학습의 예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담소를 위해 일부러 TV 예능 프로그램을 챙겨 본다든가,⁴² 업무상 전화 응대할 것을 대비해 북한식 말투를 교정하는 것이 있다. 이런 전략은 ‘국가정체성’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면담자의 국가정체성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⁴⁰ 송광성·박성희·정문성·김경준, “북한 청소년 생활,” 『한국청소년연구』, 제19호 (겨울, 1994), pp. 120-122.

⁴¹ 사례 13은 고용상태에 있으면서도 보기 드물게 자기 사업을 하려고 여러 모로 노력하였는데 이런 능동적인 부의 창출 시도는 그가 북한에서 당원의 위치 - 타인을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위치 - 에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위직일수록 ‘바깥세상’ 등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접할 기회가 많은 현실 역시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⁴² “TV도 사실 난 드라마 이런 거 더 좋아하는데, 드라마보다는 스타킹이나 이야기에 낄 수 있는 거 좀 더 많이 봐요.” (사례 14)

(5) 적응 포기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 이외에도, ‘적응 포기’를 선택하는 피면담자 사례도 있다. ‘적응 포기’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합류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사회 활동 대신 가정생활에만 충실하거나 혈족 이외의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적응 포기’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희망하지만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북한이탈남성일수록 이러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기에서 설명한 인구학적 특징이 갖는 맥락적 조건의 영향이 크다. 비자발적으로 ‘적응 포기’에 이르는 피면담자들은 쉽게 실의에 빠진다고 호소하였다.

바. 결과: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

‘결과’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원래의 중심현상이 조절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⁴³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의 다양한 대응 전략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유형들이다.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 결과는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 ‘탈국가적 개인주의’로 구분된다.

(1)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유형은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 통합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효율적이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구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유형은 북한의 ‘음식 문화’, ‘생활 풍습’, ‘두고 온 지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애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니까’, ‘많은 세월을 살아온 곳이니깐’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실제로도 사회 통합 정도가 높았다. 또한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질문하면, 맥락에 따라 ‘한국사람’의 측면과 ‘북한 사람’의 측면에 따른 두 가지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⁴³ 김은정,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들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p. 119.; 김진숙, “소아암 부모 리더들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p. 425.

“내 정체성이야 북한 사람이지. (중략) 남한 정체성 갖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체성이란 게, 나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한테서 이질감 느끼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고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외 받고 이런 일은 대체로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고 뭘 어쩔 거야 나보고 같이 놀자 그러는데. 북한 사람이니까 술 먹으라 하지마 우리끼리 먹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사례 13)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같아. 남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직장 나가서 뭐 똑같이 일하고 같이 잘 어울리잖아요. 소통도 잘하고. 나가서 기본은 하죠. (중략) 북한 북한 그러는데 사람 자체는 잘못 없잖아요. 나와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중략) 나는 북한에 대한 정도 있는 거잖아.” (사례 14)

사례 13과 사례 14는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일원으로서 자신 역시 당연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는 자신이 ‘북한 출신’이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 이후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하였으나,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여전히 ‘북한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일부’로서, 자신의 북한적 정체성은 인정하지만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적 정체성이 사회적 낙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자신에 대해 한국사람 혹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으로만 본다고 지적하였다.

“차별 받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지.” (사례 6)

“우리 교포들을 보면 취업이 안 되가지고, 교포로 보기보다는 탈북자로 봐요.”
(사례 3)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욕망과 한국 사회의 이주민/타자(他者) ‘밀어내기’가 충돌하며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3)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은 차별을 받는 한국 사람이라 여기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 국적 소지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와 다르게 ‘탈북한 한국 국적자’는 자신의 북한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타인이 자신을 북한인으로 볼 때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뭐 아르바이트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국제결혼비자? 그런 게 있어야 한대요. 아니 저희는 결혼비자 없이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취득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취득이 아니라 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분증 받는 거라고.” (사례 8)

북한 출신에 대한 부인은 실제 북한에서의 삶이 고달픈수록 북한 당국에 대한 미움이 강할수록 뚜렷하였다. 이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은 가지고 있으나 김정일 정권만큼은 붕괴되기를 희망하며, 국가 대항전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이기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런 북한적 정체성의 부정과 한국 사람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들은 자신이 완전한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회적 차별과 부적응 앞에 이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아직 차별 받는 사람’,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국사람’, ‘씨앗’ 등으로 자신을 정의하였으며, 마음먹은 만큼 쉽게 전진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였다.

“주민등록증은 이것이기 때문에 난 이걸 택하죠. 느끼기엔 더 한국 사람이죠. 월드컵 뿐 아니라 우리(한국)하고 그쪽(북한)이 벌어진다면 저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 하고. 어쨌든 여러모로 불리해요. 아무 것도 못해요. 씨앗이에요. 새터민이라는 게 그 뜻도 그런 것 같아요. 터를 잡는 사람들. 터를 잡은 게 아니라 잡는 사람들. 씨앗이면 떨어져 있으면 터를 잡기 위해서 따뜻한 별이 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겠죠. 근데 전진하지 못하고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례 1)

(4) 탈국가적 개인주의자

‘탈국가적 개인주의자’란 국가정체성이 약화되어 원래의 국가 정체성이 차지하던 부분을 다른 집단적 정체성이나 개인주의가 대신 자리 잡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탈국가적 개인주의자’는 사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탈국가적 개인주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9는 처음 인천 공항에 들어왔을 때의 소감을 태국 공항보다 규모가 작아 실망스러웠다고 대답했다. 이는 인천 공항에 들어서며 ‘안도’, ‘안심’, ‘벅참’, ‘여정이 끝났다는 공황’, ‘앞날에 대한 걱정’ 등을 느꼈다는 다른 피면담자들과 달리 인천 공항을 ‘내가 살아갈 나라의 공항’이 아닌 세계 여러 공항 중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인 정체성 역시 ‘탈국가적 개인주의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가정생활 할 때는 북한이란 나라에 그러니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좀 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랑과 나와서 그런 관계, 자녀 교육에서라든지 사람들과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좀 더 생각하게 되요.”(사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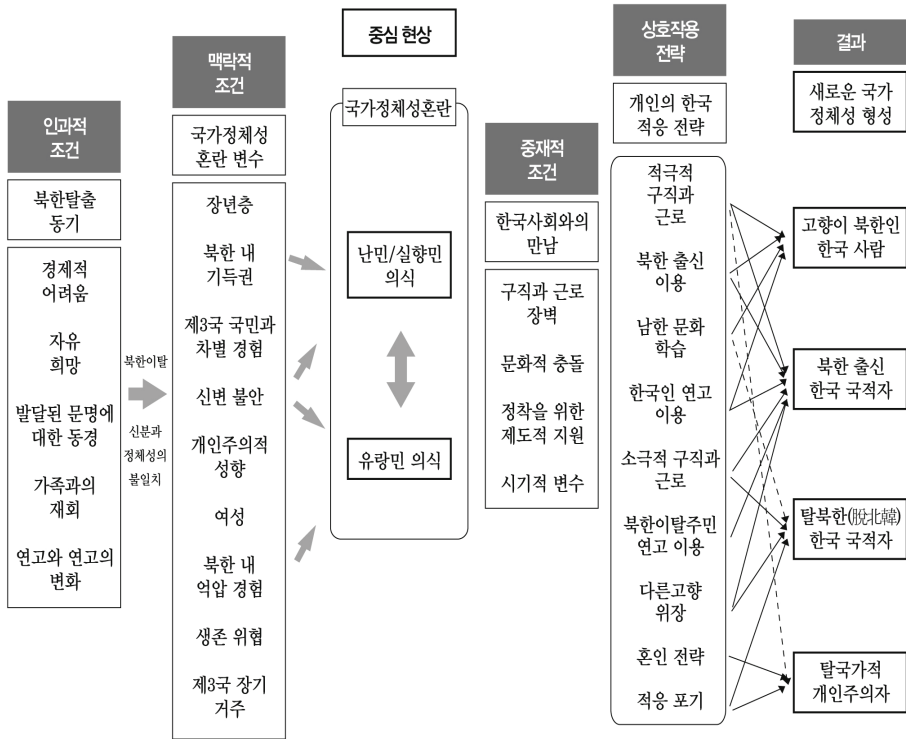
한편, ‘탈국가적 개인주의’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국가정체성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최근의 ‘탈국가(脫國家) 담론’이 주지하듯,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탈국가적 경향’은 극단적으로 ‘남한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선택코딩

이상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주의 과정에서 생기는 국가정체성의 혼란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요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정체성으로 유형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된 피면담자들의 상호작용 실체에 대하여, 각 범주들을 연결하는 선택코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유형에 대한 이야기 윤곽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중심현상인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 혼란과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국가정체성 혼란’이라는 중심 현상을 두고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이 있게 된다<그림 2>. 이 때 개인은 맥락적 조건과 주어진 중재적 조건 틀 안에서 가능한 선택 방법을 검색하고, 다양한 상호전략을 구사하여, 피동적인 상황의 산물(產物)에서 능동적 ‘참여자’(參與者)로 탈바꿈하는 측면을 가지게 된다. 이런 피면담자

의 전략은 본래의 중심현상(국가정체성 혼란)과 복잡한 맥락적 조건 및 중재적 조건과 반응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정립된 국가 정체성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북한이탈주민 국가정체성 형성과정과 유형화



북한이탈주민은 국경을 넘는 순간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이는 자신의 본래 정체성과 현재의 신분에서 오는 불일치 때문이다. 국가정체성의 혼란은 맥락적 조건인 ‘제3국 거주 당시의 경험’, ‘북한 거주 당시의 경험’, ‘인구학적 변수’ 등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유형, 즉 ‘난민/실향민 의식’과 ‘유랑민 의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3국 거주 기간 동안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인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은 서러움에 대한 반응으로 ‘난민/실향민 의식’을 지닐 가능성이 커진다.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나긴 도피의 여정을 끝내고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일종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즉, 새로운 소속 국가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가정체성 정립이 요구되며, 이는 피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 상황에서 피면담자들

은 새로운 중재적 조건 하에 놓이게 되며, 낯선 남한 사회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적 충돌(차이)’과 ‘구직 장벽’ 앞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게 되며 “부딪히고 부서진다.”⁴⁴ 뿐만 아니라 ‘월드컵 축구 경기’와 ‘천안함 사건’ 등의 국가적 이슈들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나 문화 학습,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 이용 등을 전략으로 삼기도 하고, 소극적 노력을 하거나 아예 적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 ‘탈국가적 개인주의’ 유형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중 성공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⁴⁵은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 한국 국적자’와 같은 정체성은 결국 ‘2등 시민’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탈국가적 개인주의자’는 국가정체성의 수립 측면에서만 보면 국가정체성 수립에 실패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 본래의 국가정체성이 담당하던 역할을 가족, 지역, 사적·공적인 연대 등 국가가 아닌, 소규모의 집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탈국가적 개인주의자’는 북한이탈주민들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질적 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추상적이고 정형화하기 어려운 이슈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⁴⁴ 사례 6의 인터뷰.

⁴⁵ John W. Berry, Marshall H. Segall, and Cigdem Kagitcibasi,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7), pp. 295-297.

⁴⁶ 연명흠,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개인주의 감성 비교,” 『감성과학』, Vol. 13, No. 1 (2010), pp. 85-90.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 혼란과 재정립 과정은 종래의 이민자 연구에서 보고된 정체성 혼란 및 재정립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⁴⁷ 즉, 이주민들의 국가정체성 혼란 및 재정립 과정은 모국과 새로 이주한 국가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국가정체성을 조화롭게 유지하지 못하고 양자가 충돌함으로써 생겨나는 변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⁴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이주는 ‘한반도에서의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일반적인 이주자나 난민의 상황’이라는 측면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함에 있어 이들을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 보다는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유형은 경험한 환경 및 개인의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개인의 적극성, 자기 주도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와 통합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은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노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셋째, 성별, 나이와 같은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한화’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한화’ 지향성이 강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 재형성에 있어 연령과 성별, 그리고 학력과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의 경험 등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조건적인 ‘남한화’와 ‘한국사람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남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수없이 많은 세계화 시대에 유독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

⁴⁷ Young-Hee Shim, “Transnational Field and Transnational Identity among Women Marriage Migrants in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9, No. 1 (2011), pp. 25-32.

⁴⁸ 김성주·김범준, “새로운 정체성 ‘Korean-American’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1호 (2011), p. 208.

⁴⁹ 채정민·이종환,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 9, No. 4 (2004), pp. 793-814.

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과 유사한 질적 연구가 서술과 분류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것을 근거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론적 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 유형의 다양성은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당 숫자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며 정착에 힘쓰고 있는 반면, 3,7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을 그들의 최종 정착지로 보지 않고 외국에 불법 이주를 하거나 또는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이들의 국가정체성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해외에 이주하는 3,700명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정체성을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적어도 중재적 요소와 상호작용 전략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긍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이들의 국가정체성을 더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 적응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한 국가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 신청 등 혼란스러운 양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개발되어 지속되어야 한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스트레스이며 외상(Trauma)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이는 국가정체성의 혼란과 재형성의 시도는 ‘비정상적 병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비정상적 스트레스와 외상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다. 그런 반응을 통하여 그들의 해체된 삶을 재구성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과정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통합적인 국가정체성을 가지도록 돕는 일이 통일 의 또 다른 한 쪽 주체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책임일 것이다.

■ 접수: 10월 15일 ■ 심사: 11월 11일 ■ 채택: 11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봉구 외.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0.
- 이순형·조수철·김창대·진미정.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조정아·임순희·정진경.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 Berry, J. W., Segall, M. H., and Cigdem Kagitcibasi,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Boston: Allyn and Bacon, 1997.
-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Design*. CA: Sage Publication, 2007.
- Giulianotti, Richard. *Globalization and Football*. London: Sage Publication, 2009.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 1991.
- Strauss, Anselm L. and Juliet M. Corbin.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1998.
- _____. 김수지, 심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6.

2. 논문

- 권나혜.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성주·김범준. “새로운 정체성 ‘Korean-American’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1호, 2011.
- 김용민. “통일 독일의 미래는 동독인들에게? - 통일 독일사회의 동독 젊은이와 여성들.” 『독일문학』. 제101집, 2007.
- 김은정.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들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한국사회학』. 제43권 2호, 2009.
- 김재상. “통일 이후 동서독 간 갈등의 재조명-2000년대 오스탈기 붐과 동독 이상화 현상을 보는 독일 사회의 시각 변화.” 『뫼히너와 현대문학』. 제 36권, 2011.
- 김진숙. “소아암 부모 리더들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2호, 2005.
- 송광성·박성희·정문성·김경준. “북한 청소년 생활.” 『한국청소년연구』. 제19호, 1994, 겨울.
- 연명흠.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개인주의 감성 비교.” 『감성과학』. Vol. 13, No. 1, 2010.

-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 이동과 처벌 실태.” 『통일전략』. 제18권 1호, 2006.
- 전우택·염유식. “이 땅에서의 첫해, 500명 북한이주민의 삶과 생각.” 『제16회 한반도 평화 포럼 자료집』. 2009.
- 전우택·유시은·조영아·홍창형·엄진섭·서승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5권 제3호, 2006.
- 전우택·윤덕룡·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3권 1호, 2004.
-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한 국학』. 제19권 1호, 2011.
- 정주신. “국내의 북한이주민 실태와 정부의 과제-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2003.
- 채정민·이종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Vol. 9, No. 4, 2004.
- 홍미선. “퀘벡 이주문화를 통해 본 이주민의 언어와 정체성.” 『불어불문학연구』. 제74권, 2008.
- Berry, John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1, 1997.
- Evans, M.D.R., & Kelley, Jonathan. “National Pride in the Developed World: Survey data from 24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s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4, No. 3, 2002.
- Partington, David. “Building Grounded Theories of Management Action.”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 11, 2000.
- Shim, Young-Hee. “Transnational Field and Transnational Identity among Women Marriage Migrants in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9 No, 1 2011.

3. 기타자료

- 『한겨레 신문』. 2007년 4월 30일.
- 『한겨레 신문』. 2010년 9월 12일.

Abstract

The Patterns and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 Grounded Theory Study*

Wootack Jeon, Shieun Yu, Yeonwoo Lee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and the patterns of national identity form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using a ground theory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North Korean refugees and analysed by grounded theory.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ntil they were saturated.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used in a grounded theory. Analysis included open coding ,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study derived 73 concepts, 23 subcategories, and 6 categories in open coding. Consequently, national ident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classified into “North Korean origin”, “South Korean with North Korean origin”, “South Korean Citizenship of post-North Korea”, and “post-national individualist”. The finding of the study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regarding new national identities for 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and preparation of integration of North Koreans and the South Korean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National Identity, Adaptation, Integration, Ground Theory